

# 익산시 2035년 청사진 확정

### 도시기본계획, 1도심·2부도심·3대 발전축 성장

익산시의 미래는 신성장·특화·문화산업 등 3대 발전축을 바탕으로 성장시킬 청사진이 확정됐다.

13일 익산시는 도시기본계획(안)이 전북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생활권별 중심지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익산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인 2035년 익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미래와 장기적 발전방안을 담은 청사

진을 발표했다.

중심지 체계와 생활권별 설정이 연계되는 도심기능 통합운영 등을 고려해 기존 1도심 1부도심에서 북부지역 중심 행정·주거 기능 합일읍과 산업·물류·관광 기능 금마·왕궁면을 새로운 부도심으로 1도심 2부도심 4지역 중심 체계로 육성해나간다.

특히 익산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연계하는 동서간 신성장산업 발전축, 익산제3·4 일반산업단지 중심의 특화산업 발전축, 왕궁~금마 중심의 문화산업 발전축을 3대 축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생활권별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KTX 익산역 광역환승센터 구축,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남부 증생환권 공간구조를 개편한다.

그린바이오 미래 농생명 혁신파크 조성, 동물헬스클러스터 집적화, 산업단지 확장 등은 북부 증생환권으로 추진전략 사업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교통계획은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오산역 신지리~영민리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 및 자율주행차 동차 시범운영지구 계획 등을 반영한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단거리 중심의 특화산업 발전축, 왕궁~금마 중심의 문화산업 발전축을 3대 축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출범을 위해 심보균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조직 전열을 갖추고 출발 신호탄을 알렸다.

## 익산 도시관리공단, 출발 '신호탄'

### 심보균 신임 이사장 등 임원 6명 임명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출범을 위해 심보균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조직 전열을 갖추고 출발 신호탄을 알렸다.

시는 전문성을 겸비한 수장을 중심으로 공단 운영을 준비하며 행정에서 ESG경영으로 무게추를 옮겼다. 공공 시설물 관리·운영 효율화와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난 12일 시장실에서 익산도시관리공단 제1회 이사장 임명식을 열고 심보균 이사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교부했다.

또한 비상임이사 3명과 당연직인 기획안전국장, 회계과장 등 총 6명이 임원으로 임명됐다.

심보균 신임 이사장은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차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유엔가버넌스센터원장, K-ESG평가원장 등을 역임해 행정과 ESG경영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심 이사장의 임기는 총 3년으로 오는 2026년 6월까지이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 1명, 비상임이사 3명을 임명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했고, 4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임원 후보자를 익산시장에게 추천했다.

이후 익산시의회는 8일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내정된 심보균 이사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절 의견을 내놓았다.

시는 신임 이사장의 행정 및 경영리더 직무능력, 경영마인드, 경력 등을 토대로 도시관리공단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심보균 이사장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최첨단 ICT로 스마트도시 전환 '시동'

### 스마트도시 조성 기틀 마련 위한 5개 분야 25개 서비스 로드맵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도시문제를 해결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익산형 스마트도시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13일 허전 부시장과 공무원, 시민위원 및 자원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비전과 추진전략, 5개 분야 25개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용역을 시작하며 부서 인터뷰, 시민 설문조사, 시민 리빙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발굴했다. 특히 교통, 안전, 복지 분야에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 복지, 환경, 문화·관광 등 5개 분야에서 ICT 기술혁신으로 시민 편익을 증대한다. 미래형 교통도시 체계를 위해 스

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거점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시스템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중국 양저우서 '군산새만금 문화학당' 개강

군산시는 지난 11일 교원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가 있는 중국 강주(江蘇)성 양저우(揚州)시에서 '군산 새만금 문화학당'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강식은 양저우시 최치원 기념관에서 열렸으며 시는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이 양저우시 리빈(李斌) 최치원 기념관을 비롯한 50여명의 수강생이 참석했다. 문화학당은 한글 교육과 군산의 문화 등 교양강습과 김치 담그기 등 체험학습으로 진행할 계획

이다.

'군산 새만금 문화학당'은 지난 2014년 칭다오시(靑島)에서 시작한 이후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군산 중국사무소 사업이다.

군산 새만금 문화학당을 통해 중국 내 친(親) 군산 네트워크 확보와 한·중 인문교류 교류보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엔터이시(烟台) 등 8개 도시에서 총 27회 1,300여명이 수강했다.

양저우시는 최치원 선생의 역사가 있는 군산의 국제 우호도시다. 이곳은 고운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 빈공과 급제 후 관리 생활을 지낸 곳으로, 이때 '계원필경'과 '보황소격문'을 집필했다.

중국은 2007년 이곳 양저우에 최치원 기념관'을 세워 최치원 선생이 한·중 문화교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시는 올해 양저우시에서 제7회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와 최치원 선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주민자치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설명회

군산시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회장 문남철)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전라북도 정책기획관)을 초청해 글로벌 생명경계도시 조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옥산면 합방센터에서 민선 8기 추진단은 군산시 2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전북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작년 전북특별자치도법 발의 및 법의 국회 통과,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

치도 지원위원회 구성 등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오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오는 7월 13일 전라북도에서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협력을 펼치고 있고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업을 강화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청년물 상상노리터 8주 8색 문화 '토요 축제'

익산 청년물 '상상노리터'가 멋진 공연과 최고의 맛으로 매주 토요일 방문객들을 사로잡는다.

시는 맛과 가성비, 열정이 넘치는 청년 상인들과 함께 문화 마케팅을 펼치며 청년물과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고 탄탄한 고객 창출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8주간에 걸쳐 8색의 다양한 공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물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커뮤니티라운지 1층 고객센터에서 다양한 축제를 기획했다.

매주 2팀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발라드, 재즈, 팝송, 트로트, 클래식, K-POP, 댄스, 풍선아트, 미술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가자 모집

군산시가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6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이동센터, 야외수영장, 도서관 등의 시설과 시청 및 주민센터 등에서 오는 7월 10일부터 4주간 행정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6월 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이거나 군산에 주소를 두고 있던 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이다.

단, 휴학생과 대학원생, 해외 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재학생은 제외되며, 기존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중복 참여도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